

지역 **메아리**

완주군 하천 정화활동 진행

완주군이 제26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22일 완주군은 봉동읍 봉동교(구 마그네코) 아래 고수부지에서 주민, 유관기관·단체, 기업, 공무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수자원 보전을 위한 겨우내 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대적인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제26회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은 각계각층의 물 관리 중요성 인식 및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하천정화 활동과 환경감시원 전시회를 통해 수질보전에 대한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도입

완주군은 가로등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실시간 중앙제어 관리를 위해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을 도입했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가로등 양방향시스템은 무선통신 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해 점·소등 및 고장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일몰, 일출에 따른 점등관리가 가능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완주군은 지역에너지 절약 공모사업을 통해 총사업비 5억원(국비 2억, 군비 3억)을 투입해 우선적으로 삼례읍, 봉동읍, 용진읍 가로등과 보안등에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호룡, 김제장학재단에 후원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권한대행 이 후천)은 지난 21일 김제시 민정을 민정 농공단지 소재의 (주)호룡(대표이사 박장현)에서 지역우수 인재양성에 써 달라며 장학사업 후원금 2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주)호룡은 1990년 1월에 세워진 기업으로 고가사다리차, 고소작업차, 크레인, 전동크레인 등을 생산함으로써 고층물류 운송 및 건설인력 절감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한국무역협회 오백만불 수출의 달을 수여 받기도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작년 4월에는 김제시와 470억원 규모의 지평선신단 투자 협약도 체결했다.

또한 (주)호룡은 2015년부터는 매년 지역 저소득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달라며 수천만원의 이웃돕기 성금도 기탁하는 등 지역기업으로서 지역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년 예산확보에 머리 맞대다

김제시, 추진상황 보고회...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현안 논의

김제시는 지난 21일 2019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4차)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제시는 그간 3차에 걸쳐 발굴한 43개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등 총 77개 사업에 대해 부서별 전라북도과 중앙부처 방문 활동사항을 보고하고 문재인 정부 2년차 정책방향 및 국가예산 확보 여건을 공유하며 효과적인 국가예산 확보전략을 중점 논의했다.

또한 부처별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사업추진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정치권과의 공조 체제를 강화해 발굴된 사업이 부처 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국가예산확보 대상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2개소(416억원), 국립 새만금 간척지 농업연구센터 건립(400억원), 아열대농업 생태체험관 건립(450억원), 김제시 물재용(도심실개천) 조성사업(202억원),



김제시는 지난 21일 2019년 국가예산 추진상황 보고회(4차)를 개최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부권 스포츠안전 복합센터 건립(450억) 등 총 7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07억원이며 2019년도 확보대상 국비는 782억원 규모이다.

이후전 시장권한대행은 “예산 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과 5월이

내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정책에 부합한 논리를 보강하여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여 반드시 목표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공모사업 선정

김제시보건소, 983개 확보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생명 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2018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에 김제시보건소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약안전함 공모사업 결과 읍면지역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983개를 확보하여 전라북도내 가장 많은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사전조사를 거쳐 선정된 권역별 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하게 되면서 농약안전사고 예방 및

농약으로 인한 자살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도농통합도시의 특성을 갖는 김제시는 통계청 자료에서 최근 2년간 15명이 농약음독자살을 하는 등 자살 사망도구로 농약이 2위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역사회에서 음독 자살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의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통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지역 자살예방 시범사업인 생명사랑 녹색마을 지정과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재원을 지원하고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사업주관으로 시행되며 김제시보건소와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업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농약안전보관함사업은 2016년 황산면 하북마을, 2017년에 백산면 원조마을, 백구면 외가전마을, 봉남면 신덕마을, 만경읍 대죽마을 4개 마을에 총 158개를 지원하였고, 2018년에는 지난 2월 2일까지 마을별 사전신청을 받아 2월 10일까지 신청 82개 마을에 전수 조사를 통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객관적 지표에 따른 심사를 거쳐 2018년 농촌지역 자살예방사업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으로 37개마을(983개)이 선정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모악산축제 추진상황 보고회

김제시는 22일 제11회 김제모악산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후전 시장 권한대행이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실과소, 읍면동 각 부서별 축제 담당 프로그램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축제

기간 많은 시민들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만큼 음식·교통·주차·편의시설 행사 만족도와 직결되는 서비스 부문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자연이 그려낸 어머니의 산, 모악산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금산사 일원에서 개최되며 지난

해 조류독감으로 축제가 취소되었던 만큼 올해는 4개 분야 38개 더욱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상춘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모악산 축제는 그동안의 빛꽃 축제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고 명산 모악산 마실길 걷기 대회, 모악산 퀴즈쇼, 무형문화재 공개 시연행사 등 모악산인이 가진 고유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찾아가는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문해강사 파견, 어르신들 한글교육 운영

완주군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성인문해 진달래학교’ 신규 학습자를 추가 모집 한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진달래학교는 ‘진짜 달콤한 내 인생을 꿈꾸는’ 어르신들의 한글교육으로, 마을 경로당이나 읍·면사무소 등에 문해강사를 파견해 한글 기초반, 초등 학력인정반, 초등 심화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진달래학교는 읍·면사무소 및 마을경로당 등에서 총 27개 반 300여명이 교육중이다.

특히 올해는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초등 학력인정반을 총 4개소(삼례읍, 소양면, 고산면, 비봉면)에서 2단계 및 3단계 과정을 운영하며, 내년 2월에는 40여명의 학력 인정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이서 정농경로당을 대상으로 3단계 초등학력

인정반을 운영해 지난 2월 첫 졸업생 11명을 배출했다.

또한 졸업생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초등 심화반을 개설해 이야기한국사, 악기분야(오카리나)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서 학습하고 있다.

진달래학교 신청대상은 한글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6인 이상이면 마을경로당에 학습장 개설 신청도 가능하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한글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강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평생학습팀(063-290-2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 위험요인 중 하나인 비만의 관리 및 예방을 위해 김제시 체육회와 연계하여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트랩필린-점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트랩필린-점핑교실은 연중모집 체지방률 25%이상 주2회 15명 정도 인원으로 3~11월 까지 진행되며 프로그램 시작 전후로 개인별 체성분 검사와 혈액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해 이에 대한 비교분석과 상담을 통해 맞춤형 비만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흔히 볼록한 뱃살은 주로 배안의 내장과 내장 사이에 지방이 쌓여 생긴 현상이며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육량이 적고 체지방률이 많은 상태에 서 뱃살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근육이 붕해되고 위축돼 근육량이 감소한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살이 빠졌다고 느껴 질뿐 실제로 다이어트가 된 것은 아니며 체중은 줄었는데 도리어 체지방 비율은 늘어난 ‘마른 비만’ 상태가 되어 당뇨병과 골다공증 발생 위험률이 올라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근육량이 적으면 혈당을 높여주는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므로 운동이나 걷기 등 신체 활동을 늘려 허리둘레를 줄여야 근육량도 유지하고, 뱃살도 쉽게 뺄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운동을 병행해야 심혈관질환이나 관절염을 예방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